

광주서도 확진환자... 지역 총선 예비후보들 '당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유권자들, 후보자와 접촉 꺼려

약수는커녕 명함 건네기도 곤란...어깨띠 두르고 눈인사 등 안간힘

4·15총선이 불과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의 마음도 다급해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사태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약수를 청하거나 명함을 건네는 후보들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선거 운동에 애를 먹고 있다.

더구나 이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지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이 공천적합도(당선 가능성) 조사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가면서 예비후보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

해 막바지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우한 폐렴 사태로 지역 분위기가 얼어붙어 안절부절하고 있다.

4일 광주·전남지역 각 총선 예비후보 사무실에 따르면 최근 며칠새 후보들과 약수를 건네거나 명함을 받지 않는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 더욱이 이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환자가 광주에 거주하는 43세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고 각종 행사와 모임이 취소되면서 예비후보들은 유권자를 만나기조차 어렵게 됐다.

이미 일주일 전부터 시민들 사이에서는 약수를 청하거나 명함을 건네는 후보들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짙어졌으며, 후보들도 적극적인 스킨십이 되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유권자에게 접근하는 자체를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다고 시민들만 탓할 수도 없다. 예비후보들은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만큼 시민들은 이들이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자칫 잘못된 일이 발생할 경우 누구를 탓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후보들 입장에서 답답지 않다.

전남의 한 예비후보는 "평소에도 정치 무관심으로 약수를 청하거나 명함을 건네면 등을 돌리는 시민이 더러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가 커지면서 약수를 거부하고 명함을 거절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 "거리에 가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특히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은 약수를 더 꺼린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도 "약수를 청하거나 명함을 줄까봐 시선을 피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름을 알리는 방법으로 명함을 주면서 약수 한 번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스스로 유권자에게 접근하기를 자제하는 후보들도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표심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

다는 판단 때문이다.

광주의 한 예비후보는 "얼굴을 알아야 하는데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주민들이 꺼려하는데 약수를 청할 수도 없어 어깨띠를 두르고 손팻말을 들고다니면서 눈인사를 나누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예비후보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광주에서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이명 사태가 겹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최악의 경우 현장 선거운동은 접어야 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은 "경선을 앞두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1분초가 아까운데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될까 걱정이 앞선다"면서 "민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옮겨가면 정책과 인물선거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경석 기자



보건당국이 4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병원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6번째 확진환자인 광주 광산구 거주 40대 여성이 지난달 27일 내원해 치료를 받았던 곳으로 확인됐다. /김경숙 기자

코로나 확진자, 지역병원 치료 후 전남대병원행

광주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환자는 국가지정 병원인 전남대병원 입원 이전에 지역 중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4면>

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에 거주하는 42세 여성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

A씨는 지난 1월15일부터 태국 방콕과 파타야 등을 여행하고 19일 오전 제주항공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다. 귀국에는 5명이 동행했으며 신종 코로나 발생지인 중국을 다녀온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폐 절제술 등 폐 기저질환이 있던 이 환자는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오한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27일 광산구 21세기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이후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폐렴약을 처방받았다. X-Ray와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에는 광산구 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고, 2월1일부터는 열이 38.7도까지 오르고 가래에서 피가 검출됐다.

2월 2일 호흡곤란, 오한 증상과 함께 X-Ray와 CT 촬영에서 폐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후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격리됐고,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4일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의원 국유지 불법 매립 논란

농지개량 명분 멋대로 행사
국토관리청 원상 복구 명령

전남도의회 한 의원이 부인 명의의 땅 인근 국유지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 매립 기간이 무려 8년에 달하고 매립된 흙의 양도 덩프 트럭 수천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출신 재선의 모 도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2천500㎡ 면적의 저지대 땅을 농경지로 만들겠다고 우량 농지 개량허가를 받았다. 이 땅은 해당 의원의 부인과 지인이 공동으로 사들였으며, 해마다 연장 신청을 통해 최근까지 복토작업을 해왔다.

이들은 애초 시로부터 '2천500㎡ 면적의 저지대 농경지를 성토해 지반을 높이겠다'며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받은 땅 경계를 넘어 인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소유의 농지는 물론 심지어 도로까지 국유지 곳곳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들은 지난 8년동안 자신의 땅 뿐만 아니라 인근 국유지까지 높이 3m에서 심한 경우 10m까지 석축을 쌓고 성토 작업을 진행했는데 최근 인근 주민이 자신의 땅에서 흙을 쌓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들들났다.

현행법은 개인이 국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고 임대료를 내야 한다. 또 성토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정 규모 이상의 흙을 쌓거나 파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해당 의원 측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판단하고 국유지를 관리하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자산관리공사 등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유지를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무단으로 국유지를 훼손한 것은 엄연하게 불법인 만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익산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도 "매립과 관련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고, 협의절차도 전혀 없었다"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농사를 지으려고 우량 농지 개량허가를 받아 흙을 쌓았는데 국유지가 포함된 줄은 몰랐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원상복구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직 도의원이 국유지를 8년동안이나 불법으로 매립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계 당국의 묵인 의혹 등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 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 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